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및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Relationships among Father's Involvement in Child-rearing, Psychological Life Position, and Child's Prosocial Behavior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석사설경옥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학전공
부교수 문혁준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 : Gyeong-og Seo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Associate Professor : Hyuk-jun Moon

목 차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제언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the father's involvement in child-rearing, psychological life position, and child's prosocial behavior.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four- and five-year-old, kindergarten children (N=261) and their fathers who lived in Incheon. A questionnaire was used and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ile, mean, standard deviation, Cronbach's α , t-test,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Fathers who took a positive attitude to themselves and others showed more positive involvement in various child-rearing activities such as shared activities with children, supporting cognitive-social development, and child caregiving and monitoring. In addition, children reared by fathers who had a higher positive attitude to others helped their friends well. As the father's developmental support in child-rearing became more positive, the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increased.

주제어(Key Words): 아버지 양육참여도(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심리적 자세(psychological life position), 친사회성(prosocial behavior)

1. 서론

과거에 아버지는 도구적·수단적 역할을 담당하고 어머니의 역할과는 다른 차원에서 자녀의 사회화에 개입하였으나 산업화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와 여성 취업의 증가, 가족 형태의 변화는 아버지 역할에 대한 재정립을 요구하였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취업과 사회참여로 인해 자녀양육이 어머니만의 문제가 아닌 공동의 관심사가 되었으며, 핵가족의 확산은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있어 부모가 함께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켰다(김희주, 1997; Hanson & Bozett, 1985; Lamb, 1981). 이와 더불어 아버지도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었고, 적극적으로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양육적 아버지'가 새로운 아버지 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Lamb, 1986; Larossa, 1988).

현대가족에서 좋은 아버지란 자녀에 대한 지식이 많고 자녀의 말을 경청해 주며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버지를 의미한다(이숙현, 1995; Roid & Canfield, 1994). 최근에는 우리나라에도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과 같은 단체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아버지들이 자녀의 양육에 스스로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05).

아버지의 양육참여 관련 선행 연구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은 어머니보다 적지만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머니와 비슷하며, 오히려 자녀의 요구에 대해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Lamb, 1981; Parke, 1981), 아버지의 적극적 양육 참여는 유아의 인지(성수현, 1996), 성역할(최경순, 정현희, 1995), 사회성(조순옥, 김나림, 1995)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Dodson(1974) 역시 출생부터 5세까지를 인간발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보고 이 시기의 아버지는 자녀가 주변 대상을 향해 기본적인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했으며, 유영주(1981)는 아버지가 사회적인 안정을 주고 어머니보다 이성적으로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판단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현희와 최경순(1992)의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자녀양육에 참여할수록 유아의 친사회적 도덕 판단 능력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김정신(2000) 또한 아버지 양육참여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이 높다고 보고한 여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자녀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은 영유아기부터 강조되어야 하며,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은 출생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과 생활하고 행동하면서 발달한다. 출생 후 유아가 접하게 되는 환경이란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으로 대별되지만 환경 중에서도 가정환경은 다른 환경에 비해 가족구성원이 심리적으로 강한 유대

감을 지니며, 유아의 여러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방어적 기능과 사회화를 도와주는 교육적 기능을 지니고 있어(정원식, 이상노, 이성진, 1982) 유아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환경이다. 특히 부모가 조성하는 심리적 환경은 절대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개개인은 살아가는 동안 자신과 타인을 긍정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느냐 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게 되는데, 한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태도를 Berne(1961)은 심리적 자세(psychological life position)라고 표현하였다. 심리적 자세는 가치관이나 인생관, 세계관 등과 관련된 것으로(Stewart & Joines, 1987), 이에 따라 사물에 대한 지각과 경험의 해석 및 행동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기와 타인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자세도 긍정적인 시각이 될 것인데 반해 자신의 심리적 제한점으로 인해 자녀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 자녀에게 공감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자녀의 성장발달을 돕는 자의 긍정적, 부정적인 심리상태가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킨다는 Cialdini와 Kenrick(1976) 그리고 Hoffman(1977)의 연구결과는 유아를 돕는 자가 아버지라고 본다면, 아버지의 심리적 자세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의 국내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태도와 같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부모의 영향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Huntsinger, Jose와 Larson(1998)은 부모의 성격과 정서 상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도와 양육태도를 결정하고 가정의 분위기를 좌우하게 되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았으며, 이를 입증하듯 김경희(2000)는 아버지의 자기와 타인에 대한 심리적 자세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현대사회의 유아들은 예전보다 더욱 영리하고 많이 알고는 있지만, 타인을 배려하거나 협동할 줄 모르는 아이로 변해가고 있으며,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이기숙, 1994).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하며, 사회에 적응하며 살 수 있는 사회성 발달, 그 중에서도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Honig, 1996). 특히 친사회적 능력이 부족한 유아가 증가하고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는 추세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아버지 행동을 결정하는 심리적인 자세가 유아의 친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심리적 자세에 대해 알아보고 이 두 변인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어머니뿐만이 아닌 아버지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상의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심리적 자세는 아버지의 배경 변인(연령, 교육수준, 직업, 가정의 월수입)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은 유아의 배경변인(성별, 연령, 출생순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심리적 자세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4.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심리적 자세는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4, 5세 유아 261명과 그들의 아버지 261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심리적 자세 및 양육참여도를 측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백분율 (N=261) N(%)	변인	구분	백분율 (N=261) N(%)
유아의 성별	남	126(48.3)	아버지의 연령	35세 이하	51(19.5)
	여	135(51.7)		36세-40세	137(52.5)
자녀의 연령	4세	98(37.5)		41세 이상	73(28.0)
	5세	163(62.5)	아버지의 교육수준	고졸이하	79(30.3)
출생 순위	외동이 첫째 둘째 셋째 이하	40(15.3)		초대졸	64(24.5)
		114(43.7)		대졸	108(41.4)
		57(21.8)		대학원졸 이상	10(3.8)
자녀수	1명 2명 3명 이상	40(15.3)	아버지의 직업	생산직	58(22.2)
		193(73.9)		전문직 및 행정관리직	67(25.7)
		28(10.8)		판매 서비스직	100(38.3)
		100(38.3)		사무직	36(13.8)
가계 월수입	200만원 미만	59(22.6)	가계 월수입	200-300 만원미만	100(38.3)
	300만원 이상	102(39.1)			

정하기 위한 아버지의 질문지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교사용 질문지로 구성되었다.

1)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영환, 조복희, 이진숙(1999)의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생산적 아버지 노트' 연구에서 양육참여요인을 추출하여 사용하였으며, 하위요인은 발달적 지지, 자녀 돌보기 및 지도,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 등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에서 4점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참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 간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발달적 지지 .84, 자녀 돌보기 및 지도 .79,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 .78, 양육참여도(전체)는 .91로 나타났다.

2) 아버지의 심리적 자세

아버지의 심리적 자세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병래(1998)의 부모의 심리적 자세 검사지 중 아버지용을 사용하였으며, 자기긍정의 자세, 자기부정의 자세, 타인긍정의 자세, 타인부정의 자세 등 총 5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긍정형(자기긍정과 타인긍정의 자세)과 부정형(자기부정과 타인부정의 자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점수는 가장 긍정적인 견해로 표시되었을 때 5점, 가장 부정적인 견해로 표시되었을 때 1점으로 점수화를 시켰다. 문항 간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자기긍정의 자세 .82, 자기부정의 자세 .78, 타인긍정의 자세 .72, 타인부정의 자세 .71로 나타났다.

3)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이혜주(1996)가 우리 문화에 맞게 번역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Weir와 Duveen(1981)의 교사용 친사회적 행동 검사(Prosocial Behavior Questionnaire: PBQ)와 Doescher(1986)의 수정판 교사용 친사회적 행동 검사(Modified Prosocial Behavior Questionnaire: Mod-PBQ)를 참고로 하여 제작된 것으로 하위요인인 돕기, 나누기, 협력하기, 편안하게 해주기 등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며, 문항 간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돕기 .85, 나누기 .88, 협력하기 .75, 편안하게 해주기 .78, 친사회적 행동(전체) .94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배경 변인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검증을 산출하였으며,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심리적 자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표 2〉 배경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차이

변 인	구 분	사례수	M	SD	F값
아버지의 연령	35세 이하	51	2.87	.44	.57
	36세-40세	137	2.79	.47	
	41세 이상	73	2.81	.50	
아버지의 교육수준	고졸이하	79	2.72	.47	2.39
	초 대 졸	64	2.81	.51	
	대 졸	108	2.86	.44	
	대학원졸 이상	10	3.07	.43	
아버지의 직업	생 산 직	58	2.69	.46	3.14*
	전문직 및 행정관리직	67	2.76	.53	
	판매 서비스직	100	2.86	.42	
	사 무 직	36	2.96	.47	
가정의 월수입	200만원 미만	59	2.69	.41	3.64*
	200-300만원 미만	100	2.79	.42	
	300만원 이상	102	2.89	.53	

*p<.05

위해 Pearson's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질문지의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α 로 구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SPSS WIN 11.0을 이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심리적 자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의 배경 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다음,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심리적 자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1.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표 2〉는 배경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전체)에 대한 결과이다. 〈표 2〉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직업(p<.05)과 가정의 월수입(p<.05)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전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 집단이 가장 높은 양육참여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판매 서비스직' 집단, '전문직 및 행정관리직' 집단, 그리고 '생산직'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의 월수입이 많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아버지의 심리적 자세

1) 아버지의 자기긍정 자세

배경 변인에 따라 아버지의 자기긍정의 자세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ANOVA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자기긍정 자세는 아버지의 연령, 교육수준에 따라 통계적으

〈표 3〉 배경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자기긍정 자세 차이

변 인	구 분	사례수	M	SD	F값
아버지의 연령	35세 이하	51	3.78	.40	1.67
	36세-40세	137	3.68	.38	
	41세 이상	73	3.67	.40	
아버지의 교육수준	고졸이하	79	3.64	.45	1.04
	초 대 졸	64	3.69	.38	
	대 졸	108	3.74	.35	
	대학원졸 이상	10	3.74	.35	
아버지의 직업	생 산 직	58	3.62	.39	2.92*
	전문직 및 행정관리직	67	3.72	.45	
	판매 서비스직	100	3.66	.33	
	사 무 직	36	3.85	.40	
가정의 월수입	200만원 미만	59	3.52	.42	9.34***
	200-300만원 미만	100	3.71	.41	
	300만원 이상	102	3.78	.32	

*p<.05, ***p<.001

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아버지의 직업(p<.05)과 가정의 월수입(p<.001)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무직' 과 월수입이 '300만원 이상' 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자기긍정의 자세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아버지의 자기부정 자세

〈표 4〉는 배경 변인에 따라 아버지의 자기부정 자세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ANOVA 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4〉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자기부정 자세는 자기긍정의 자세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연령, 교육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아버지의 직업(p<.05)과 가정의 월수입(p<.001)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산직' 과 '판매 서비스직' 집단이 '사무직' 과 '전문직 및 행정관리직' 집단보다 그리고 가

〈표 4〉 배경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자기부정 자세 차이

변 인	구 분	사례수	M	SD	F값
아버지의 연령	35세 이하	51	2.40	.38	.73
	36세-40세	137	2.48	.43	
	41세 이상	73	2.48	.44	
아버지의 교육수준	고졸이하	79	2.52	.47	1.01
	초 대 졸	64	2.48	.40	
	대 졸	108	2.42	.41	
	대학원졸 이상	10	2.40	.35	
아버지의 직업	생 산 직	58	2.59	.43	3.56*
	전문직 및 행정관리직	67	2.35	.46	
	판매 서비스직	100	2.49	.34	
	사 무 직	36	2.40	.49	
가정의 월수입	200만원 미만	59	2.62	.45	8.01***
	200-300만원미만	100	2.49	.42	
	300만원 이상	102	2.35	.38	

*p<.05,***p<.001

정의 월수입이 '200만원 미만' 인 집단이 '200만원 이상' 인 집단보다 자기부정의 자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아버지의 타인긍정 자세

〈표 5〉는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아버지의 타인긍정의 자세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ANOVA 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5〉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타인긍정 자세는 각각 변인에서 집단간 미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5〉 배경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타인긍정 자세 차이

변 인	구 분	사례수	M	SD	F값
아버지의 연령	35세 이하	51	3.83	.34	.29
	36세-40세	137	3.84	.35	
	41세 이상	73	3.80	.30	
아버지의 교육수준	고졸이하	79	3.83	.37	.62
	초 대 졸	64	3.79	.31	
	대 졸	108	3.85	.33	
	대학원졸 이상	10	3.73	.33	
아버지의 직업	생 산 직	58	3.79	.31	1.05
	전문직 및 행정관리직	67	3.88	.35	
	판매 서비스직	100	3.81	.32	
	사 무 직	36	3.81	.36	
가정의 월수입	200만원 미만	59	3.80	.38	.31
	200-300만원미만	100	3.82	.33	
	300만원 이상	102	3.84	.31	

4) 아버지의 타인부정 자세

〈표 6〉은 배경 변인에 따라 아버지의 타인부정의 자세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ANOVA 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6〉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타인부정 자세는 각각 변인에서 집단간 미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배경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타인부정 자세 차이

변 인	구 분	사례수	M	SD	F값
아버지의 연령	35세 이하	51	2.53	.32	.24
	36세-40세	137	2.55	.38	
	41세 이상	73	2.57	.41	
아버지의 교육수준	고졸이하	79	2.55	.41	.57
	초 대 졸	64	2.59	.34	
	대 졸	108	2.52	.37	
	대학원졸 이상	10	2.64	.35	
아버지의 직업	생 산 직	58	2.61	.38	1.12
	전문직 및 행정관리직	67	2.49	.37	
	판매 서비스직	100	2.54	.35	
	사 무 직	36	2.59	.43	
가정의 월수입	200만원 미만	59	2.60	.41	.76
	200-300만원미만	100	2.55	.36	
	300만원 이상	102	2.53	.37	

3.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1) 유아의 성별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유아의 성별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을 〈표 7〉에서 살펴보면, 친사회적 행동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 유아의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즉, 돕기($t = -2.65, p < .01$), 나누기($t = -2.11, p < .05$), 협력하기($t = -3.32, p < .001$), 편안하게 하기($t = -2.88, p < .01$), 친사회적 행동 전체($t = -3.03, p < .01$)에서 여아가 남아에 비해 높은 친사회적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교사들이 평가하였다.

〈표 7〉 유아의 성별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

구 분	유아의 성별	사례수	평 균	표준편차	t값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돕 기	남	126	2.33	.52	-2.65**
		여	135	2.49	.49	
	나누기	남	126	2.43	.50	-2.11*
		여	135	2.56	.46	
	협력하기	남	126	2.39	.43	-3.32***
		여	135	2.56	.40	
편안하게 하기	남	126	2.12	.49	-2.88**	
	여	135	2.30	.49		
전 체	남	126	2.32	.43	-3.03**	
	여	135	2.48	.41		

* $p < .05$, ** $p < .01$, *** $p < .001$

2) 유아의 연령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유아의 연령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을 〈표 8〉에서 살펴보면, 친사회적 행동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아의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돕기($t = 3.29, p < .001$), 나누기($t = 4.11, p < .001$), 협력하기($t = 2.86, p < .01$), 편안하게 하기($t = 4.97, p < .001$), 친사회적 행동 전체($t = 4.28, p < .001$)에서 만 4세가 만 5세에 비해 높은 친사회적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교사들이 평가하였다.

〈표 8〉 유아의 연령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

구 분	유아의 성별	사례수	평 균	표준편차	t값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돕 기	만 4세	98	2.54	.47	3.29***
		만 5세	163	2.33	.52	
	나누기	만 4세	98	2.65	.42	4.11***
		만 5세	163	2.41	.50	
	협력하기	만 4세	98	2.57	.40	2.86**
		만 5세	163	2.42	.42	
	편안하게 하기	만 4세	98	2.40	.46	4.97***
		만 5세	163	2.10	.49	
	전 체	만 4세	98	2.54	.40	4.28***
		만 5세	163	2.32	.43	

** $p < .01$, *** $p < .001$

〈표 9〉 유아의 출생순위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

구분	유아의 출생순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돕기	외동이	40	2.35	.55	2.92*
		첫째	114	2.51	.48	
		둘째	57	2.38	.48	
		셋째 이하	50	2.28	.53	
	나누기	외동이	40	2.44	.46	3.96**
		첫째	114	2.61	.43	
		둘째	57	2.44	.46	
		셋째 이하	50	2.35	.58	
	협력하기	외동이	40	2.44	.46	2.74*
		첫째	114	2.55	.38	
		둘째	57	2.45	.39	
		셋째 이하	50	2.36	.48	
	편안하게 하기	외동이	40	2.26	.51	2.00
		첫째	114	2.28	.47	
		둘째	57	2.14	.53	
		셋째 이하	50	2.11	.50	
	전체	외동이	40	2.38	.45	3.36*
		첫째	114	2.49	.39	
		둘째	57	2.35	.41	
		셋째 이하	50	2.28	.48	

*p<.05, **p<.01

3) 유아의 출생순위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유아의 출생순위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을 〈표 9〉에서 살펴보면, 편안하게하기를 제외하고 돕기(F= 2.92, p<.05), 나누기(F= 3.96, p<.01), 협력하기(F= 2.74, p<.05), 그리고 친사회적 행동 전체(F= 3.36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편안하게하기를 제외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의 모든 영역에서 '첫째'가 가장 높고 '셋째 이하'가 가장 낮은 것으로 교사들이 평가하였다.

4.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심리적 자세의 관계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심리적 자세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을 살펴보면 자기긍정의 자세는 발달적 지지(r=.37, p<.001), 자녀 돌보기 및 지도(r=.27, p<.001),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r=.31, p<.001), 양육참여도

〈표 10〉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심리적 자세의 상관관계

심리적 자세 양육참여도	자기긍정의 자세	자기부정의 자세	타인긍정의 자세	타인부정의 자세
발달적 지지	.37***	-.28***	.19**	-.15*
자녀돌보기 및 지도	.27***	-.22***	.11	-.08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	.31***	-.13*	.18**	.03
전체	.37***	-.25***	.18**	-.09

*p<.05, **p<.01, ***p<.001

전체(r=.37,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부정의 자세는 발달적 지지(r=-.28, p<.001), 자녀 돌보기 및 지도(r=-.22, p<.001),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r=-.13, p<.05), 양육참여도 전체(r=-.25, p<.001)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긍정의 자세는 발달적 지지(r=.19, p<.01),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r=.18, p<.01), 양육참여도 전체(r=.18,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인부정의 자세는 발달적 지지(r=-.15, p<.05)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과 타인 긍정의 자세가 높을수록 자녀양육에 많이 참여하며, 자신에 대한 부정의 자세가 높을수록 양육에 덜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1〉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의 상관관계

양육참여도 친사회적 행동	발달적 지지	자녀돌보기 및 지도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	전체 양육 참여도
돕기	.15*	.10	.09	.13*
나누기	.01	-.05	-.00	-.01
협력하기	.13*	.02	.07	.09
편안하게 하기	.12	.02	.02	.07
전체	.11	.03	.05	.08

*p<.05

5. 아버지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표 11〉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돕기는 발달적 지지(r=.15, p<.05) 및 양육참여도 전체(r=.13, p<.05)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협력하기는 발달적 지지(r=.13, p<.05)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자녀의 인지·사회적 발달을 지지해 줄수록 유아의 돕기와 협력하기가 빈번하고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유아의 나눔을 도와주는 돕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6. 아버지의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

아버지의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상관관계〈표 12〉에서, 단지 돕기만이 타인긍정의 자세와 유의한

〈표 12〉 아버지의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의 상관관계

심리적 자세 친사회적 행동	자기긍정의 자세	자기부정의 자세	타인긍정의 자세	타인부정의 자세
돕기	.02	-.05	.13*	-.00
나누기	-.04	.02	.11	.01
협력하기	.04	-.06	.10	-.03
편안하게 하기	.01	-.05	.09	-.03
전체	.01	-.04	.12	-.01

*p<.05

정적 상관관계($r=.13, 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타인 긍정적 자세가 높을수록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중 돕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양육참여에서 아버지의 직업이 사무직이며 가정의 월수입이 300만원 이상인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직업의 유형에 따라 참여도가 다르게 나타난 성귀자(1999)와 한은규(2004)의 연구결과와 가정의 월수입이 많을수록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김경희(2000)와 한은규(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가정의 월수입이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최한순(1995)과 성귀자(1999)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원인을 white collar에 종사하고 수입이 좋은 아버지일수록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자녀양육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근무조건 및 만족도 등 직업과 관련되어 복합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아버지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가정의 월수입에 따른 자기 자신에 대한 심리적 자세를 조사한 결과, 사무직이나 전문직 및 행정 관리직보다 판매서비스 및 생산직 집단에서 자기 긍정적 자세는 낮고 부정적 자세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수입이 많을수록 자기 긍정적 자세는 높고 자기부정의 자세는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직업에 따라 자기 긍정적 자세가 높게 나타난 이병래(1998)와 김현옥(2002)의 연구와 가정의 월수입에 따라 자기긍정의 자세가 높다는 김경희(2000)와 김현옥(2002)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는 것으로 근무환경 및 처우에 대한 끊임없는 개선을 통해 아버지의 자기긍정 자세가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타인에 대한 심리적 자세에서는 아버지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가정의 월수입에 따라 각 집단 간에 미미한 차이는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학력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이병래(1998)의 연구와는 일치하나, 학력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타인긍정의 자세가 높다는 김현옥(2002)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한편 설문 응답 시 아버지의 일시적인 심적 상태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결과해석 시 이에 대한 주의가 각별히 요구된다고 보여 진다.

셋째, 교사가 평가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친사회적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박서정과 김순옥(2003)의 여아가 남아보다 나눔과 협동행동에서 친사회적 행동이 높다는 결과와는 일치하나, 전효정(2001)의 도구적 도움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타인을 더 많이 돕는다는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성별에 상관없이 남을 배려하고 도우는 등 친사회성을 강조하는 교육이 유아교육기관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유아의 연령에서는 만 4세가 만 5세 보다 친사회적 행동이 높게 교사에 의해 평가되었으며, 이는 이영자(1989)의 연령이 높은 유아가 낮은 유아에 비하여 친사회적 행동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진 연구와는 일치되나, 이옥경(1995)의 연령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한다는 연구와는 일치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와 사회의 학습성취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경쟁의식이 조장되는 사회풍토에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유아의 일상생활을 지켜볼 수 있는 교사의 보고는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평가자로 인한 편견이 개입되었을 가능성 또한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출생순위에서는 첫째아가 외동아 또는 둘째 이하의 유아보다 돕기, 나누기, 협력하기, 그리고 친사회적 행동 전체에서 가장 높게 교사에 의해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아에게 책임감을 강조하는 우리나라 부모의 양육태도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외동아가 점점 많아지는 우리사회에서 유아교육기관의 혼합연령반 구성을 통한 친사회적 행동의 자연스러운 교육이 요구되어진다고 보여 진다.

넷째, 아버지의 심리적 자세와 양육참여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자기긍정의 자세가 높고 자기부정의 자세가 낮을수록 양육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긍정의 자세에서는 양육참여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타인부정의 자세는 발달적 지지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긍정적 심리자세를 가질수록 자녀양육에 많이 참여하고, 타인에 대한 자세보다 자기에 대한 자세가 더욱 밀접하게 양육참여도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아버지의 자기긍정·타인긍정의 자세가 양육참여도의 하위변인인 모든 활동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발표한 김경희(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아버지의 심리적인 요인이 양육참여도에 선행되는 중요한 요인임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아버지가 유아와 함께 놀아주고 발달적 지지가 적극적일수록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아버지가 허물없이 놀이상대가 되어 지도를 해주는 것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조장하는데 기여한다고 보고한 최경순과 정현희(1995)의 연구에서 아버지

가 양육의 제 측면(자녀와 여가 생활 즐기기, 생활 지도하기, 가사 활동 참여하기, 인지적 성취지도하기)에 활발히 참여할 경우 그 자녀는 갈등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의 입장 모두를 고려하고 문제 해결전략이 뛰어난 것으로 밝혀진 김광웅과 이인수(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아버지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많은 가정의 아동은 대인적응, 자아적응, 정서적응, 가족적응 등 모든 면에서 사회적 적응력이 높다는 윤서영과 정옥분(1999)의 결과를 뒷받침 해준다. 이러한 결과들은 자녀양육에 있어 질 못지않게 양도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적극적인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위해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다각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아버지가 타인 긍정적인 자세가 높을수록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중 돕기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타인 긍정의 자세가 높은 아버지에게서 성장한 유아들은 사회성이 높고 친구들과 더불어 잘 지내며, 힘들거나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자발적으로 도와주기를 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유아가 부모의 긍정적 정서 표현을 모델링하거나 부모에게서 정서를 표현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타인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도출해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론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연구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로 제한하였고 연구도구의 변인 일부를 발췌하여 사용하였기에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평가하는데 있어 교사에 의한 평가 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다분히 주관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추후연구에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또래에 의한 측정법, 관찰자를 달리하는 면접법 등의 다양한 방법이 병행되어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는 아버지의 심리적 자세와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만을 살펴본데 머물렀으나, 어머니를 포함한 부모의 심리적 자세와 아버지 이외에 유아와 장시간 생활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그들의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바람직한 성장 발달을 위해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가 중요한 것으로 밝혀진 본 연구결과를 통해 자녀 양육에 있어 아버지 참여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환경조성과 아버지의 심리적 자세를 긍정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김경희(2000). 아버지의 심리적 자세 및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웅, 이인수(1998).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정서적 능력. 아동학회지, 19(2), 65-75.
- 김정신(2000). 아버지 양육태도와 양육참여도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옥(2002). 아버지의 심리적 자세 및 역할수행과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주(1997). 아버지 자녀양육 참여도 및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서정, 김순옥(2003).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부모와의 상관관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 6, 1-24.
- 성귀자(1999).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수현(1996).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도와 아동의 성취동기와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2005). 2005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유영주(1981). 가족관계학. 서울: 수화사.
- 윤서영, 정옥분(1999).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0(2), 101-123.
- 이기숙(1994). 유아교육과정. 서울: 교문사.
- 이병래(1998). 부모의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숙현(1995). 남성의 취업과 가족 상호작용: 대기업 사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29, 271-289.
- 이영자(1989). 부모의 훈육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동기와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환, 조복희, 이진숙(1999).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생산적인 아버지 노릇 척도개발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12), 79-89.
- 이옥경(1995).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추론과 친사회적 행동.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주(1996). 친사회적 행동훈련이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 추론, 사회적 책임감, 친사회적 행동동기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효정(2001).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증진에 영향을 주는 요

- 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공격성 방지 및 사회성 증진을 위한 이론적 모형. *영유아보육연구*, 7, 61-72.
- 정원식, 이상노, 이성진(1982). *현대교육심리학*. 서울: 교육출판사.
- 정현희, 최경순(1992). 아버지의 양육 참여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 판단능력. *아동학회지*, 13(1), 38-51.
- 조순옥, 김나림(1995).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연구. *원광보건전문대학 논문집*, 6, 129-147.
- 최경순, 정현희(1995).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유아의 역할수용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1), 125-139.
- 최한순(1995).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은규(2004).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erne, E. (1961). *Transactional analysis in psychotherapy*. New York : Grove Press.
- Cialdini, R. B., & Kenrick, D. T. (1976). Altruism as hedon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4, 907-914.
- Dodson, F. (1974). *How to Father*. Los Angeles: New American Library.
- Doescher, S. M. (1986). Impact of prosocial classroom and home learning programs on preschool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Oregon State University.
- Hanson, M. H., & Bozett, F. W. (1985). *Dimension of fatherhood*. Beverly Hills, California, Sage Publication, Inc.
- Hoffman, M. L. (1977). Sex differences in empathy and related behaviors. *Psychological Bulletin*, 84, 712-722.
- Honig, A. S. (1996). Helping Children became more prosocial: Ideas for classrooms, families, schools, and communities. *Young Children*, Jan, 62-70.
- Huntsinger, C. S., Jose, P. E., & Larson, S. L. (1998). Do parent practices to encourage academic competence influence the social adjustment of young European American and Chinese American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4(4), 747-756.
- Lamb, M. E. (1981). Fathers and child develop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M. E. Lamb(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1-70)*. New York: Wiley.
- Lamb, M. E. (1986). *The Father's Role: Applied Perspective*, 3-57. New York :Wiley.
- Larossa, R. (1988). Fatherhood and social change. *Family Relations*, 37, 451-457.
- Parke, R. D. (1981). *Fathering*.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 Roid, G. H., & Canfield, K. R. (1994). Measuring the dimensions of effective fathering.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4, 212-217.
- Stewart, I., & Joines, B. (1987). *Today: A new introduction to transactional analysis*. Nottingham & Chapel Hill: Lifespace.
- Weir, K., & Duveen, G. (1981). Further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rosocial behavior questionnaire for use by teacher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2(4), 357-374.

(2005년 12월 28일 접수, 2006년 3월 7일 채택)